

내게
"웃음을"
안겨준 사람
- 긴급돌봄서비스 우수사례 -

**A씨는 2008년 교통사고로
우측 상지마비를 가지게 된 중년이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극심한 통증으로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지냈었습니다.**

**A씨에게 하루란 의미없는
나날일 뿐이었습니다.**



Hel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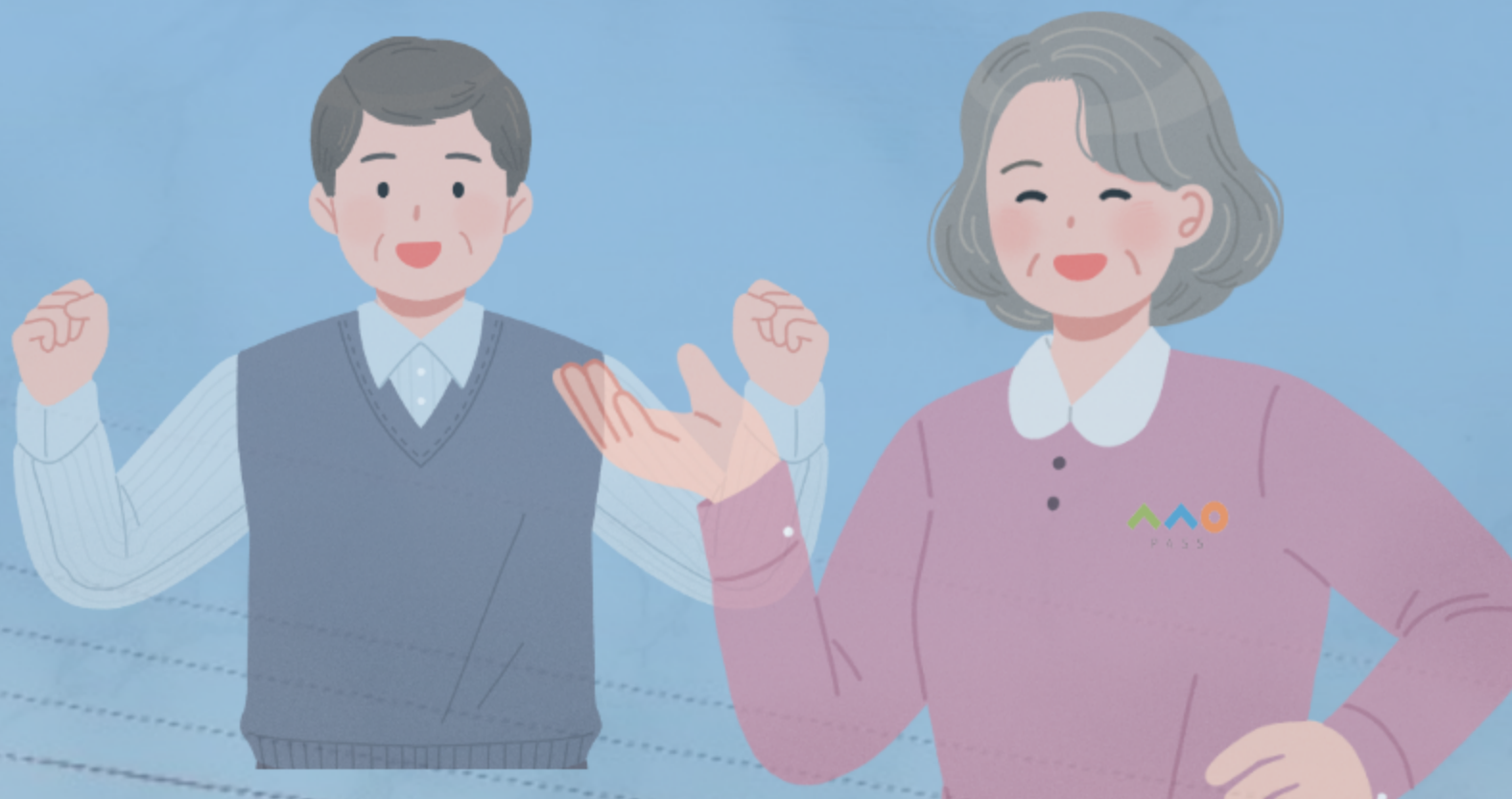
**A씨는 매일 자살을 생각하며
마지못해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중
동주민센터로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서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A씨와 매칭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이요 돌봄관리사님은
우울증을 겪고있는 A씨에게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웃 돌봄관리사님은
A씨가 다시금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사소한 이야기부터 고민까지
함께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가 끝나던 날

"아들처럼 저를 친昵하게 대해주시는
이OO 돌봄관리사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덕분에, 세상을 조금
더 살고싶어졌어요"

라고 말하는 A씨의 얼굴엔
따뜻한 미소가 한가득
담겨있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오늘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참여마당 내 내용

돌봄 관리자 적극 칭찬합니다!

작성자 : 이** 작성일시 : 2023/07/19 15:57 조회수 : 76

안녕하세요..

2008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우측 상지 마비로 심한 통증을 매일 24시간 가지고 사는 중년입니다..

통증때문에 자살만 생각하고 의미없는 생활을 하던 중..

문화동사무소에 도와달라는 민원을 말했는데.. 청소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쓰레기를 치워주시고..

북구 종합재가센터 돌봄관리사 (이 .)님을 저에게 긴급으로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속으로 어차피 자살할건데 대중 청소나 받자.. 생각했는데 조금씩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웃고있는 절 보게 되었습니다..

통증때문에 웃지를 않던 저에게.. 돌봄관리사님과 대화하

면서 그래!... 더 살아보자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말과 행동을 해주셨습니다.. 동정으로 대해주시는게 아니고 살이갈 방법도 제시 해주시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진짜 자기 아들한테 충고하는 것처럼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살만 생각하던 저에겐 너무너무 고마우신 분입니다

쓸모없는 한명을 살리신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니 돌봄관리사님께 보답하고 싶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생각 뿐이었습니다...

이런 소중하고 훌륭한 분은 오랫동안 뵈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

전 이 .) 돌봄관리사님이 아니었음 지금쯤 이세상엔 없었을겁니다..

이런분이 진짜 봉사하는 삶을 살고 계신거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알고싶다면?



광주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광주사회서비스원
통합자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